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마땅한 가르침 성경: 잠언 13장 20-25절

Tag:

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21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22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23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24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5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리느니라 (잠13:20-25)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6)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윤리와 책임을 말한다. 부지런해야 하는 것,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것, 몸에 해로운 음식 먹지 말아야 하는 것, 남 괴롭히지 말아야 하는 것, 식구들을 잘 보살피야 하는 것,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등등.

특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할 윤리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다.

왜 가르쳐야만 할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반성하면서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매우 선택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 본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을 장착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OS가 다양할 수 있음. 또 태성적으로 죄인이며, 바이러스, 마귀의 OS도 있다.) 살다보면 어느새 엉뚱한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경우가 많고, 세상과 접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얻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세심하게 살피면서 양육해야 한다.

습관이란 참으로 그 파급력이 크다. 오죽했으면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을까? 이 속담이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이 속담이 만들어진 그때에는 요즘과는 달리 여든까지 살면 더 이상 습관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이니 세 살 버릇 너끈히 100세까지 간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윤리를 어기면서 살아간다. 자기 뿐만 아니라 식구들을 괴롭히고, 타인을 괴롭게 한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동정이라도 하겠지만, 얼마든지 그런 짓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못되게 들어서 그런 몹쓸짓을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씩은 나쁜 버릇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자신이 판단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끼치게 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거나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게 된

다는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을 몰래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은 발각된다.

만약 약삭빠른 어른이라면 그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잘 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상황을 조작하기도 하고, 헛소문을 이용하기도 하고, 거짓증인을 내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적과의 동침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의 행동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께 대한 경건이다.

결국 용서는 하시지만, 반드시 댓가는 치루어야 한다는 원칙이 아버지의 원칙이다. 심지어 결정적인 댓가는 아버지편에서 치루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교리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의 고난이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희생이 남아있다.

흔히 모든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고난은 마땅한 가르침과 동떨어진 마땅찮은 습관 때문일 경우가 많다. 십자가의 고난 이외의 마땅찮은 고난은 마땅한 가르침으로 예방한다.

오늘 본문 말씀들이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들이다.

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교훈은 미련한 자와는 사귀지 말라는 말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련이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한 것을 말한다. 사귀다는 말은 앞에 동행이란 단어와 연관지어 볼 때, 동업이나 절친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와 맺지 말라는 교훈이다.

21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운이 따르지 않아 들키게 되었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댓가를 정확하게 지불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재앙으로, 의인에게는 보응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밀한 해석은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불행에 대한 선부른 판단은 위험하다. -불행에 대해 고소해 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우리의 기본 태도는 동정일 뿐이다. 왜냐하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22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썩이느니라

심지어 선행의 댓가는 도미노처럼 그 후손들에게 물려진다. 이것은 나쁜일이 아니며, 마땅한 일이며, 그가 베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의 선행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욕심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그 부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갖는 것은 도둑질이다. 도둑질은 욕심스러운 것보다 더 악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형벌하시겠다는 말씀이다.

23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해도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고, 불의한 자가 결정적인 순간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는 교훈은 참으로 무서운 교훈이다.

24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요즘 교육학에서는 매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다. 매가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매를 들어야 하고, 부모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매질이 달라져서도 안되며, 매질 만큼은 친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모의 권한으로 징계하는 것이다. 그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친 부모에게는 무조건적 용서를 전제로 한 징계이기 때문에 교훈으로서의

효과가 크다.

25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리느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잠언의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들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성경: 로마서 8장 18절

Tag:

65.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롬1:16)

복음의 능력은 크고 강하고 확실하다. 복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만족을 주고, 우리를 구원케 한다.

66. 로마서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3:20)

율법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은 마땅한 행동에 대한 깨우침이다.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것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머무는 것은 허물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 나비와 같다.

67.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3:23)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천사처럼 나를 꾸미는 재주가 있다고 믿는 자는 마귀의 탈을 쓴 사람이다. (낸시랭과 왕진진-전준주 =윤지오와 비슷?)

그러므로 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감동을 소망하는 자는 의인이다.

68.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5:8)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이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 하셨습니다.

69. 로마서 6: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6:23)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70. 로마서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롬8:18)

현재의 고난은 영광과 비교했을 때의 고난이다.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71. 로마서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8:26)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령님도 강력하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누구든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 아멘.